

농업 및 농업직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과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정철영* · 서우석**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 **인천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교수)

A Study on Attitude toward and Value on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Occupations

Chyul-Young Jyung* · Woo-Seok Seo**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ch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적 요

이 연구는 농업 및 농업직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파악하고, 그러한 태도 및 가치관의 형성과 관련된 변인을 구명하여, 농업 및 농업직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의 형성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는 질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지리적 위치(중부/남부), 학교 위치(도시/농촌), 학교 종류(농업계 고등학교/일반계 고등학교)를 고려하여 유층화 군집분석을 하여 학교를 표집한 후, 각 학교의 남녀 학생수가 동수가 되도록 학생을 표집하였다. 표집된 총 12개 학교에 480매의 질문지를 우편으로 우송하였고, 응답한 415매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통계 분석의 유의 수준은 5%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이 농업 분야로 판단하는 분야는 식물생산, 동물생산, 농축산물 가공, 농업기반조성, 농업교육 및 연구 분야이었으며, 농업 하면 연상되는 분야로 대부분 식물생산 분야를 지적하였고, 모피 및 임산물 가공 분야는 선택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농업과의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가장 매력있는 농직업 분야는 농업교육 및 연구 분야,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 분야, 식물생산 분야, 농업환경 분야의 순이었으며, 성별과 농업에 대한 사고 영향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농직업 중 매력이 없는 직업으로 동물생산직이 압도적이었으며, 그 다음이 모피 및 임산물 가공직이었다. 이는 농촌 거주나 거주 경험 유무와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농업직에 대한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원은 농업에 종사하는 주변인을 보고 영향받는 등 간접적인 경험의 경우가 많았다. 다섯째, 농업직에 대한 태도를 농업생산직과 농업관련직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조사 항목에 대하여 차이를 검증한 결과 안전성과 고용안정성에 있어서는 농업관련직과 농업생산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그 외의 항목에서는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농업관련직이 농업생산직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교육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1. 서론

농업은 인간의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농업은 홍수를 조절하고, 수자원을 함양하고, 대기를 정화하며, 토사의 유출과 토양의 침식을 막고, 다양한 동식물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함은 물론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국토 보존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업기회를 제공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첨단 과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국민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옛부터 “농자(農者)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은 영농(farming)에 국한되었던 개념에서 농업관련직에 더욱 많은 비중을 할애함과 동시에 토지위주, 노동위주의 전통적인 방법에서 기술위주, 첨단과학 위주의 기법으로 변화하였다. 즉, 종래의 농업은 자연을 중심으로 토지를 이용하여 작물, 가축 등 생명이 있는 식물이나 동물을 생산하는 것에 한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농업은 토지와 토지에 작용하는 자연력을 이용하여 자급자족하거나 또는 출하할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식물을 채집하는데 한정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경제의 발달과 산업사회의 분화에 따라 농업 분야의 기술발달, 전문분야의 분화, 분야간의 긴밀한 연계 등으로 그 개념이 점차 확대되었다. 즉, 영농 등과 같은 생산농업 이외에 농업관련 분야의 영역도 농업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의 현대적 개념은 작물의 재배나 가축의 사육 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제조, 농업 토목 등 농업기반 시설의 설치, 농산물의 저장, 가공, 유통 및 판매, 농업 인력의 양성과 관리, 농업관련 행정, 금융, 무역, 정보, 연구, 사무분야 등도 농업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농업이 1차, 2차, 3차 산업을 포괄하는 종합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농업을 중심으로 한 생명과학이 21세기를 주도할 산업으로 인식되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 간에 걸친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은 그 개념이 토지중심, 노동중심의 영농의 개념으로만 인식되어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그 의미가 축소되고 퇴색화하여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가치관은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결과 농업계 학교에 대한 지원율이 감소하여 미달사태가 이루어지고, 그나마 농업계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지원동기가 불확실하고 재학시에도

농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형편이며, 이에 따라 농업계 학교 졸업생들의 전공분야 취업률은 다른 전공분야에 비하여 극히 낮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농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 및 농업직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파악하고, 그러한 태도 및 가치관의 형성과 관련된 변인을 구명하여, 농업 및 농업직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의 형성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의 경비, 자료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생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태도(attitude)는 사람, 사물, 대상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반응 경향으로써, 비교적 지속적인 체제를 지닌 신념의 조직체로서 학습을 통하여 또는 대상에의 직접·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형성될 수도 변화될 수도 있는 심리적인 상태(곽기상, 1983)를 의미한다. 태도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시되어 특히 사회심리학의 영역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다. 이는 무엇보다 태도가 지각에 선행한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태도가 지니는 지속성, 방향성, 학습에 의한 변화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변화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태도는 대상에 따라 특수하게 나타나는 특성(object-specific)을 지니고 있는데(양한주, 1998), 농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농업에 대하여 지니는 긍정적인 태도나 가치관이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의 농업 및 농업직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의 연구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농업에 대한 태도 검사’(송해균, 1972)가 제작된

것이 그 시작으로 파악된다. 총 25문항으로 제작된 '농업에 대한 태도 검사'는 이후에 검사대상이나 태도를 보이는 대상에 따라 문항이 다소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농업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 연구의 기본 구조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농업에 대한 태도 검사' 이후 국내의 농업 및 농직업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의 연구는 일반인(김중숙, 민상기, 1994; 송해균, 1973), 농업고등학교 학생(곽기상, 1983; 박범열, 1988), 농촌지역의 고등학교 학생(김동일 외, 1994; 김세민, 1983; 이문성, 1991; 최영준, 1990), 농촌의 농가주부(송해균, 1995), 농민(김일철, 김태현, 정명채, 1992; 이영대, 1995) 등 다양한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편, 농업에 대한 태도의 연구가 그 용어에 있어서 농민의식 및 농업에 대한 의식이나 의식구조(김일철, 김태현, 정명채, 1992; 김중숙, 민상기, 1994; 이문성, 1991; 이영대, 1995)와 같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태도의 대상을 농업에 중점을 둔 반면, 농업 및 농직업에 대한 가치관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영농직에 대한 직업관의 연구가 진행(최영준, 1990)된 것 외에는 전반적인 직업가치관 또는 직업관을 농민, 농업고등학교 학생, 농촌청소년 등에게 적용한 경우(김세민, 1983; 박범열, 1988; 이병수, 1989; 이찬형, 1989)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진행된 농업 및 농직업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구대상에 관계없이 농업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특히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하여 저소득, 중노동의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의 연구는 다소 산발적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 결과와 통합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단점과 함께, 이들의 연구결과는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는데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송해균(1973)의 연구는 농업직 종사자가 아닌 비농민의 농업에 대한 태도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시간적으로 현재와 20년 이상의 격차가 있으므로, 현재의 경향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었으며, 곽기상(1983)의 연구에서는 농업고등학

교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태도와 그 관련 변인으로서 개인의 취미, 농고 입학에 결심한 시기와 농고 입학의 결심이 입학 전에 있었는지 여부, 농업직을 장래 희망으로 하는가의 여부, 영농 종사에 대해 권고를 받은 일이 있었는가의 여부, 영농 성공 사례담을 들어 봤는지 여부, 학교 소재 지역이 도시인지 농촌인지 여부,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성격이 영농인지 비영농인지 여부, 가장의 학력, 영농 경험 정도, 학교 농장 실습의 흥미 정도, 영농으로 성공한 독농가에 대한 견학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구 대상이 농업고등학교 학생들로 한정되어 연령·거주지·직업·학력·성별 등 다양한 변인별로 농업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영준(1990)의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관 확립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직업 선택의 기준, 농업직에 대한 태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촌 지역 고등학생들의 진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직업관을 조사하였으므로, 전적으로 농업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곽기상(1983)의 연구의 제언에서는 농업고등학교 학생들 이외의 대상에 대하여 농업에 대한 태도와 그 관련 변인 및 이의 영향 요인에 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농업·농직업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이 대부분 전통적인 의미의 영농직이나 작물의 재배, 가축의 사육에 한정되어 있어, 그 영역을 확대하는 농업의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도 지니고 있었다.

III.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문헌고찰과 조사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조사도구는 문헌고찰과 전문가 검토과정을 통하여 제작되었다.

연구 대상은 지리적 위치(중부/남부), 학교 위치(도시/농촌), 학교 종류(농고/일반계고)를 기준으로 3단계로 층화하여 각 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의 학교를 남녀 학생별로 동수가 되도록 표집하였다. 표집은 남녀 학생 모두를 표집하기 위하여 남녀 공학

인 학교 또는 그 지역의 학교를 남녀로 구분하여 동수로 조사하도록 협조자에게 부탁하였다. 농고는 대개 남녀 공학이므로 문제가 없었으나, 일반계 고등학교는 남녀 공학이 아닌 경우가 많아, 일반계 학교는 남/여 학교를 각각 표집하거나 남녀 공학인 경우는 동일학교에서 30명을 남녀 각각 동수로 나누어 표집하였다. 표집 지역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동일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나, 농고는 동일 지역에 2개 학교가 없는 경우가 있고 여학생 수 역시 30명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근 지역의 학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 남녀 학생을 15명씩 표집하였으며, 일반계 학교는 남녀 공학인 경우 동일 학교를 표집하였고, 종합고등학교는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총 12개교에 480매를 우송하였고, 응답한 41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통계방법은 빈도, 백분율, χ^2 검증, t 검증 등이었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이 연구의 응답자는 (표 1)과 같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약간 많았으며, 농업계 고등학교가 48%, 일반계 고등학교가 50%였으며, 농촌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65%이고, 34%가 도시 지역에 위치하였다. 또한, 부모님의 영농종사 및 농업 관련직 종사 비율은 종사하는 경우보다는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53%정도이고, 영농이나 농업관련직 종사자중에서도 농업 관련직은 8.4%, 농업생산직은 31%였다. 그러므로 농업직 종사자중 25%정도만이 농업관련직에 종사하여, 농업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이나 친척의 영농경험정도는 26%정도만이 경험하지 못한 경우로 나타나 이들 응답자 집단은 농업에 대한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버지의 교육정도 와 어머니의 교육 정도는 고졸 정도의 비율이 각각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구 분		응답자수(%)	구 분		응답자수(%)
성 별	남자	211(50.8)	가족이나 친척의 영농경험	경험 있음	300(72.3)
	여자	200(48.2)		경험 없음	109(26.3)
	무응답	4(1.0)		무응답	6(1.4)
재학 학교 종류	일반계고	207(49.9)	아버지의 교육정도	초등학교졸	69(16.6)
	농업계고	200(48.2)		중졸	85(20.5)
	무응답	8(1.9)		고졸	195(47.0)
학교 위치	도시	140(33.7)		대졸이상	54(13.0)
	농촌	269(64.8)		무응답	12(2.9)
	무응답	6(1.4)		어머니의 교육정도	초등학교졸
농촌거주경험	경험 있음	275(66.3)	중졸		126(30.4)
	경험 없음	130(31.3)	고졸		165(39.8)
	무응답	10(2.4)	대졸이상		26(6.3)
부모님의 영농/농업관련직 종사여부	종사하고 있음	170(41.0)	무응답		14(3.4)
	종사하지 않음	219(52.8)	월평균 수입 (만원)	100	
	무응답	26(6.3)		합 계	415(100.0)
부모님의 종사직업	생산직	127(30.6)			
	농업관련직	35(8.4)			
	무응답	253(61.0)			

47%, 40%정도로 다수였다. 응답자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이었다.

2. 농업 분야에 대한 인식

농업 분야에 대한 인식은 농업에 포함된다고 생각되는 분야와 농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을 고르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농업에 포함된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조사하는 문항은 농업 분야를 9개 분야로 대분류하여 제시한 뒤 해당하는 것 모두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농업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분야는 1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식물생산(재배) 영역, 농업기반조성 분야, 동물생산(사육) 분야, 농축산물 가공 분야, 농업교육 및 연구 분야의 순이었다. 농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야는 식물생산 분야였고, 그 다음으로는 농축산물 가공 분야, 농업기반조성 분야, 동물생산 분야, 농자재 제조 분야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농업 분야로 생각되는 분야의 순서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농업 분야는 서로 순서가 달랐다. 식물생산

분야가 압도적으로 인식되었으나, 그 외에는 농축산물 가공 분야와 농업기반조성 분야의 순서가 달랐으며, 농자재 제조 분야는 농업에 대한 연상이 높은 편이나, 일반적인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농업교육 및 연구 분야는 일반적으로 농업 분야로 인식하나, 농업에 대한 연상 정도는 낮은 실정이라서 연합의 정도에서의 심리적 거리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농업에 대한 연상이 주로 식물생산 분야로 한정되고 있어, 식물생산 분야의 전망이 학생들로 하여금 농업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전분야를 폭넓게 파악하여 농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농업 교육에 있어서 농업의 영역과 범위에 대한 체계적 논의와 안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배경에 따른 농업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재학 학교 유형, 학교의 위치, 농촌 거주나 경험 여부, 부모님의 영농 및 농업 관련직 종사 또는 종사 경험 여부와 이들이 인식하는 농업이나 농업직에 대한 이해와의 관련성을 교차표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들 반응은 한 사

표 2. 농업 분야로 판단하는 분야와 농업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야

내 용	농업 분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분야		농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야	
	빈도 ¹⁾	백분비(%) ²⁾	빈도 ³⁾	백분비(%) ²⁾
식물생산 (재배)	372	89.64	306	73.7
동물생산 (사육)	208	50.12	18	4.3
농축산물 가공	200	48.19	28	6.7
모피 및 임산물 가공	56	13.49	0	0.0
농자재 제조	136	32.77	17	4.1
농업기반조성	226	54.46	21	5.1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	144	34.70	8	1.9
농업환경	119	28.67	5	1.2
농업교육 및 연구	169	40.72	12	2.9
합 계	1,630	-	415	100.0

주1) 응답자가 1개 이상 선택한 결과임.

주2) 응답자 415명에 대한 비율임

주3) 응답자가 1개만 선택한 결과임

표 3. 재학 학교 유형에 따른 농업 분야로 인식하는 분야

구 분	일반계 고교		농업계 고교		계 ¹⁾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식물생산 (재배)	194	25.3	170	20.2	364	22.6
동물생산 (사육)	105	13.7	100	11.9	205	12.7
농축산물 가공	85	11.1	113	13.4	198	12.3
모피 및 임산물 가공	17	2.2	39	4.6	56	3.5
농자재 제조	53	6.9	83	9.9	136	8.5
농업기반조성	126	16.4	97	11.5	223	13.9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	65	8.5	77	9.2	142	8.8
농업환경	40	5.2	77	9.2	117	7.3
농업교육 및 연구	82	10.7	85	10.1	167	10.4
합 계	767	100.0	841	100.0	1,608	100.0

주: $\chi^2=34.131$, $df=8$, $**p<.01$

주1) 학교유형(일반계 고교, 농업계 고교)을 표시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하였음. 따라서, 각 농업분야별 빈도가 (표 2)에서 제시된 빈도보다 같거나 적음.

람이 여러 가지를 기록한 결과이므로 이들을 그대로 응답수로 생각하여 SPSSWIN에서 다원반응분석(multiple response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이나 학교의 위치, 농촌거주나 거주 경험 유무, 부모님의 영농 및 농업관련직 종사나 종사 경험 유무등의 변수는 교차표 분석 결과 농업 분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인 유의차가 없었으나, 재학하는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계 고교생은 식물생산 분야나 동물생산 분야, 농업기반조성 분야, 농업교육 및 연구 분야를 보다 많이 농업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고, 농업계 고교생은 이들 분야보다 농축산물 가공 분야, 모피 및 임산물 가공 분야, 농자재 제조 분야,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 분야, 농업환경 분야를 더 많이 농업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농업직에 대한 매력

농업 분야 직업에 대한 매력은 가장 매력있는 분야와 가장 매력없는 분야를 조사하였다. 가장 매력있는 분야는 (표 4)와 같이 농업교육 및 연구 분야의

직업과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 분야, 식물생산 분야의 직업, 농업환경 분야의 직업을 선호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전통적인 농업 분야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새롭게 나타나는 분야의 직업을 보다 많이 선호하고 있었다. 그에 비하여 매력없는 직업은 동물생산 분야와 모피 및 임산물 가공 분야가 많이 지적되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가축 사육에 의한 분뇨와 냄새 등을 어려움으로 인식한 결과로 보여진다.

성별, 학교 유형, 학교 위치, 농촌 거주 경험, 부모의 농직업 종사 경험등의 요인과 매력을 느끼는 분야와 매력없는 분야는 다른가를 다원반응분석을 거쳐 χ^2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매력있는 농직업은 성별 변인이, 매력없는 농직업은 성별과 농촌 거주 경험 유무가 유의차를 보였으며, 그 외의 변인들은 유의차가 없었다.

남녀에 따라 매력있는 농업 분야는 (표 5)와 같이 남학생은 동물생산 분야, 농축산물 가공 분야, 모피 및 임산물 가공 분야, 농업교육 및 연구 분야를 보다 더 선호하고 있었고, 여학생은 식물생산 분야, 농자재 제조 분야, 농업기반조성 분야,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 분야, 농업환경 분야를 보다 더 선호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식물생산 분야는 여학생이 압도적

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농업계 고등학교의 생산 분야 중 식물생산 분야는 여학생의 진학을 유도하는 분야가 될 것이며, 농업교육 및 연구 분야는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으나,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선호가 많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직업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농업생산직보다는 농업관련직에 대한 선호가 많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과 같이 남녀에 따라 매력없는 농업 분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은 식물생산, 농축산물 가공, 모피 및 임산물 가공,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 농업환경, 농업교육 및 연구 분야 등을 보다 더 매력없는 분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은 식물생산, 농자재 제조, 농업기반조성 분야를 더 매력없는 분야로 판단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동물생산 분야에 대한 기피 경향이 다수였다.

표 4. 가장 매력있는 농업 분야와 가장 매력없는 농업 분야

내 용	가장 매력있는농업분야 ¹⁾		가장 매력없는농업분야 ²⁾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식물생산 (재배)	65	15.4	25	5.9
동물생산 (사육)	24	5.7	218	51.3
농축산물 가공	10	2.4	13	3.1
모피 및 임산물 가공	7	1.6	66	15.5
농자재 제조	8	1.9	42	9.9
농업기반조성	6	1.4	28	6.6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	70	16.5	9	2.1
농업환경	63	14.9	8	1.9
농업교육 및 연구	168	39.7	9	2.1
무 응 답	2	0.5	7	1.6
합 계	421	100.0	425	100.0

주1) 2가지를 415명중 응답한 8명을 합한 결과임.

주2) 2가지를 415명중 응답한 10명을 합한 결과임.

표 5. 성별에 따른 매력있는 농업 분야

구 분	남자		여자		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식물생산 (재배)	19	8.9	46	22.7	65	15.6
동물생산 (사육)	19	8.9	5	2.5	24	5.8
농축산물 가공	9	4.2	1	0.5	10	2.4
모피 및 임산물 가공	5	.3	2	1.0	7	1.7
농자재 제조	3	1.4	4	2.0	7	1.7
농업기반조성	3	1.4	3	1.5	6	1.4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	34	15.9	35	17.2	69	16.5
농업환경	31	14.5	32	15.8	63	15.1
농업교육 및 연구	91	42.5	75	36.9	166	39.8
합 계	214	100.0	203	100.0	417	100.0

주: $\chi^2=28.513$, $df=8$, $p<.005$

표 6. 성별에 따른 매력없는 농업 직업 분야

구 분	남자		여자		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식물생산 (재배)	17	7.9	8	4.0	25	6.0
동물생산 (사육)	103	48.1	113	56.5	216	52.2
농축산물 가공	9	4.2	4	2.0	13	3.1
모피 및 임산물 가공	39	18.2	27	13.5	66	15.9
농자재 제조	14	6.5	27	13.5	41	9.9
농업기반조성	13	6.1	15	7.5	28	6.8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	7	3.3	2	1.0	9	2.2
농업환경	8	3.7	0	0.0	8	1.9
농업교육 및 연구	4	1.9	4	2.0	8	1.9
합 계	214	100.0	200	100.0	414	100.0

주: $\chi^2 = 22.403$, $df = 8$, $p < .005$

표 7. 농촌 거주나 거주 경험 유무에 따른 매력없는 농업 직업 분야

구 분	있음		없음		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식물생산 (재배)	17	6.2	8	6.0	25	6.1
동물생산 (사육)	128	46.5	84	62.7	212	51.8
농축산물 가공	12	4.4	1	0.7	13	3.2
모피 및 임산물 가공	52	18.9	14	10.4	66	16.1
농자재 제조	31	11.3	10	7.5	41	10.0
농업기반조성	18	6.5	9	6.7	27	6.6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	5	1.8	4	3.0	9	2.2
농업환경	5	1.8	3	2.2	8	2.0
농업교육 및 연구	7	2.5	1	0.7	8	2.0
합 계	275	100.0	134	100.0	409	100.0

주: $\chi^2 = 15.681$, $df = 8$, $p < .05$

농촌 거주나 거주 경험 유무에 따른 매력없는 농업 직업 분야는 (표 7)과 같이 유의차가 있었다. 농촌에 거주하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식물생산, 농축산물 가공, 모피 및 임산물 가공, 농자재 제조, 농업교육 및 연구 등의 직업 분야에 대하여 매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동물생산, 농업기반조성,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 농업환경 분야의 농직업을 매력이 없는 직업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4. 농업직에 대한 태도

농업직에 대한 태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국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과학적-비과학적', '기술집약적-노동집약적', '전문적-비전문적', '수익성이 높은-수익성이 낮은',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육체적으로 힘든', '쉬운-어려운', '더러운-깨끗한', '안전한-위험한', '고용이 안정적인-고용이 불안정한', '사회적 인식이 좋은-사회적 인식이 나쁜', '시

간적으로 여유가 있는-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치있는-가치없는', '장래가 밝은-장래가 어두운', '매력있는-매력없는' 등의 15개 형용사 쌍으로 조사항목을 구성하여, 7단계로 척도를 만들어 개개인이 농업관련직과 농업생산직에 대하여 이들을 각각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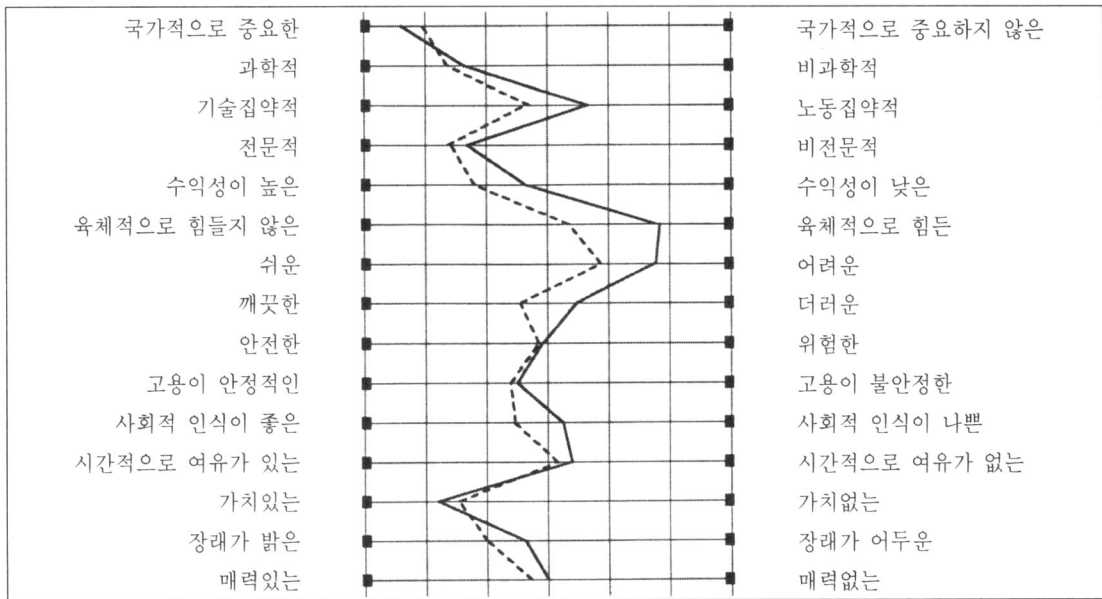
가. 농업생산직과 농업관계직에 대한 태도 점수 분포
 다음 항목에 대한 평정은 양 극단의 형용사에 '매우 그렇다'는 3점, '대체로 그렇다'면 2점, '조금 그렇다'면 1점, 상반되는 형용사의 중간에 속한다면 0점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점수의 부여는 긍정적인 형용사를 7점으로 부정적인 형용사 쪽을 1점, 중간에 속하는 경우를 4점으로 하여 평균 점수를 항목별로 계산하였다. 이들에 대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나. 농업생산직과 농업관계직에 대한 차이 검증

농업생산직과 농업관계직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가를 각 항목별로 평균 점수를 구하여 t-test를 실

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8)과 같이, 농업생산직과 농업관련직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위험한-안전한', '고용이 안정적인-고용이 불안정한'의 두 항목에서 유의차가 없었을 뿐, 그 외 13개 항목은 농업관련직과 농업생산직의 인식이 달랐다. 농업생산직은 국가적 중요성과 가치있음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4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평균점수가 높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때, 농업생산직의 경우 국가적 중요성, 과학성, 전문성, 가치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고, 농업관련직의 경우에는 이들 외에 수익성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들을 성별, 학교 종류, 학교 위치, 농촌 거주 경험 유무, 부모님의 영농 및 농업관련직 종사 경험 유무, 종사하는 농업직 유형 등과 농업생산직과 관련직에 대한 t 검증을 한 결과, 유의차를 보인 것은 국가적 중요성, 수익성, 육체적 힘들, 난이도, 안전성, 사회적 인식, 가치, 장래성 등의 항목이었다. 이를 독립변인 별로 살펴보면,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가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차가 있었으나 농업생산직에서는 육체적 힘들 이외의 분야에서 유의차를 보였



주: ___은 농업생산직, ___은 농업관련직임

그림 1. 농업생산직과 농업관련직의 항목별 태도 점수

표 8. 농업생산직과 농업관련직의 태도 점수의 항목간 차이

항 목	집단구분	원래의 값 ¹⁾		농업생산직-농업관련직 ¹⁾		t값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가적으로 중요한 - 국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농업생산직	6,395	1,215	0,352	1,494	4,80	.000**
	농업관련직	6,043	1,490				
과학적 - 비과학적	농업생산직	5,361	1,618	-0,277	1,825	-3,09	.002**
	농업관련직	5,639	1,677				
기술집약적 - 노동집약적	농업생산직	3,347	2,215	-0,949	2,571	-7,52	.000**
	농업관련직	4,296	2,166				
전문적 - 비전문적	농업생산직	5,311	1,828	-0,272	2,091	-2,65	.008**
	농업관련직	5,583	1,822				
수익성이 높은 - 수익성이 낮은	농업생산직	4,352	2,067	-0,846	2,312	-7,45	.000**
	농업관련직	5,198	1,749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 육체적으로 힘든	농업생산직	2,229	1,834	-1,422	2,348	-12,33	.000**
	농업관련직	3,651	2,006				
쉬운 - 어려운	농업생산직	2,265	1,635	-0,860	1,877	-9,34	.000**
	농업관련직	3,125	1,808				
깨끗한 - 더러운	농업생산직	3,525	1,805	-0,921	2,142	-8,75	.000**
	농업관련직	4,446	1,859				
안전한 - 위험한	농업생산직	4,082	1,880	-0,063	2,158	-59	.555
	농업관련직	4,145	1,956				
고용이 안정적인 - 고용이 불안정한	농업생산직	4,492	2,015	-0,113	2,410	-96	.339
	농업관련직	4,605	1,774				
사회적 인식이 좋은 - 사회적 인식이 나쁜	농업생산직	3,752	1,985	-0,795	2,215	-7,31	.000**
	농업관련직	4,547	1,805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농업생산직	3,602	2,063	-0,234	2,259	-2,11	.036*
	농업관련직	3,836	1,793				
가치있는 - 가치없는	농업생산직	5,800	1,526	-0,345	1,812	3,87	.000**
	농업관련직	5,455	1,705				
장래가 밝은 - 장래가 어두운	농업생산직	4,369	2,021	-0,627	2,201	-5,80	.000**
	농업관련직	4,995	1,787				
매력있는 - 매력없는	농업생산직	3,995	1,941	-0,277	2,207	-2,56	.011**
	농업관련직	4,272	1,893				

주: *p<.05, **p<.01

1) 구분항목의 앞쪽 형용사를 7점, 뒷쪽의 형용사를 1점, 중간이 4점임.

고, 농업관련직은 국가적 중요성, 육체적 힘들 항목만이 차이가 있었다. 농촌 거주 여부는 농업관련직과 농업생산직 모두에 있어서 국가적 중요성에 있어서 평가를 달리하고 있었다. 학교 위치는 농업관련직의

태도에 있어서 유의차를 보였고, 부모님의 농업직 종사 유무는 농업생산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가치와 장래성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고, 수익성은 농업생산직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부모님

의 농업직 종사분야는 농업생산직에 대한 태도에서 태도 항목별로 유의차를 보인 독립변인만을 정리하는 가치와 안전성, 육체적 힘든 항목에서 유의차가 면 (표 9)와 같다.

있었고, 농업관련직은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표 9. 유의차를 보인 독립변인별 농업직 태도의 집단간 차이

태도 항목	독립 변인		빈도	농업생산직				농업관련직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	표준편차	t	p
국가적으로 중요한 - 국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학교유형	일반계고	207	6.59	0.90	3.206	.001**	6.34	1.00	3.639	.000**
		농고	200	6.22	1.40			5.85	1.65		
	농촌거주	유	275	6.50	1.01	2.106	.037*	6.16	1.26	2.012	.045*
		무	130	6.20	1.48			5.98	1.61		
수익성이 높은 - 수익성이 낮은	학교유형	일반계고	207	3.80	1.91	-5.712	.000**	-----			
		농고	200	4.92	2.05						
	부모님 농업직 종사	유	170	-----				5.45	1.65	2.277	.023*
		무	219	-----				5.06	1.68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 육체적으로 힘든	학교유형	일반계고	207	-----				4.00	1.81	3.326	.001**
		농고	200	-----				3.36	2.09		
	부모님 종사 분야	생산직	127	2.50	1.96	2.337	.022*	-----			
		관련직	35	1.83	1.34						
쉬운-어려운	학교유형	일반계고	207	2.08	1.38	-2.336	.020*	-----			
		농고	200	2.46	1.84						
	부모님 종사 분야	생산직	127	-----				3.45	1.94	2.634	.010*
		관련직	35	-----				2.63	1.54		
안전한-위험한	학교유형	일반계고	207	4.30	1.75	2.217	.027*	-----			
		농고	200	3.90	1.98						
	부모님 종사 분야	생산직	127	4.12	1.82	2.142	.034*	-----			
		관련직	35	3.37	2.00						
사회적 인식이 좋은 - 사회적 인식이 나쁜	학교유형	일반계고	207	3.41	1.71	-3.648	.000**	-----			
		농고	200	4.12	2.18						
가치있는-가치없는	부모님 농업직 종사	유	170	5.96	1.37	2.018	.044*	-----			
		무	219	5.65	1.66						
	부모님 종사 분야부	생산직	127	6.11	1.27	2.055	.046*	5.69	1.44	2.030	.048*
		관련직	35	5.49	1.67			4.97	1.96		
장래가 밝은 - 장래가 어두운	학교유형	일반계고	207	4.02	1.95	-3.796	.000**	-----			
		농고	200	4.76	2.01						
	학교위치	도시지역	140	-----				5.29	1.67	2.133	.034*
		농촌지역	269	-----				4.91	1.74		
	부모님 농업직 종사	유	170	4.66	1.98	2.606	.010*	-----			
		무	219	4.12	2.03						

*p<.05, **p<.01

5. 농업과 농업직에 대한 지식이나 생각의 영향원

농업과 농업직에 대한 인식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영향받을 수 있다. 농업이나 농업직에 대한 지식이나 생각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받는가를 파악한 결과, (표 10)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주변인을 직접 보고', '학교 교육을 통하여'의 순이었다. 그 외에는 TV나 자신의 경험 등 마스크와 직접 체험이 영향 요소였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이나 마스크, 직접 체험, 주변 인사들의 관찰은 농업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는 주변의 농업 종사자에 대한 인상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또한 학교에서도 농업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TV와 신문 등의 방송 매체 역시 영향력이 크므로 공익성을 고려한 방송 보도가 요구된다. 농업직에 대한 지식이나 편견은 방송 매체의 공평한 취급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농업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영향원이 다른가에 대한 분석은 교차표 분석으로 이루어졌는데, 농업에 대한 인식과 매력있는 농업직 분야와 매력없는 농업직 분야가 영향원의 유형에 따라 다른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부 영향원의 항목을 합쳐서 조정하였다. 즉 TV, 신문, 책을 하나의 경로로 하였고, 그 외의 항목은 그대로 두되, 기타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농업에 대한 사고나 지식에 영향을 주는 영향원에 따

라 농업으로 인식하는 분야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농업에 대한 사고에 영향을 주는 영향원의 종류에 따라 매력을 느끼는 농업 분야가 다른가는 (표 11)과 같이 유의차가 있었다. 식물생산 분야는 주위사람의 이야기, 학교 교육, TV, 신문, 책 등을 통하여, 동물생산 분야와 농업환경 분야는 자신의 경험이나 종사자를 직접 보고 선호하게 되며, 농축산물 가공 분야와 모피 및 임산물 가공 분야,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 분야는 TV, 신문, 책 등을 통해서나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농업이나 농업직에 대한 지식이나 생각이 영향을 받았다. 농자재 제조 분야는 주위 사람의 이야기, TV, 신문, 책 등을 통하여, 농업기반조성 분야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농업교육 및 연구 분야는 종사자를 직접 보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선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매력있는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별로 농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원의 유형이 다를 수 있다. 즉 학교 교육은 식물생산 분야와 농업기반조성 분야, 농업교육 및 연구 분야에 대한 매력에 영향을 주었고, 주위 사람의 이야기는 식물생산 분야와 농자재 제조, 농업교육 및 연구 분야의 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동물생산과 농업환경 분야는 직접적인 체험으로써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농축산물 가공 분야나 모피 및 임산물 가공,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 분야는 마스크와 직접적인 체험이 중요한 매력 영향 요소였다. 그에 비하여 식물생산 분야는 직접

표 10. 농업과 농업직에 대한 지식이나 생각에 대한 영향원

내 용	빈도	백분비
농업에 종사하는 주변인을 직접 보고	139	33.5
학교 교육을 통하여	103	24.8
TV를 통하여	78	18.8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48	11.6
주위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27	6.5
책을 통하여	10	2.4
신문을 통하여	6	1.4
기타	4	1.0
합 계	415	100.0

체험보다는 매스컴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직업적 선호에 영향하기 위하여 각 농업 분야별로 홍보하는 기법을 달리함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에 대한 사고에 영향하는 영향원별로 매력없는 농업 직업 분야의 선택이 다른가를 검토한 결과 유의차가 없었다. 그러므로 매력있는 농업 직업 분야는 영향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매력없는 농업직은 영향원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이 농업 분야로 판단되는 활동은 식물생산(재배) 분야, 동물생산(사육) 분야, 농축산물 가공 분야, 농업기반조성 분야, 농업교육 및 연구 분야를 많이 선택하고 있었으며, 농업 하면 연상되는 분야는 74% 정도가 식물생산 분야를 지적하였고, 모피 및 임산물 가공 분야는 선택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농업과의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성별, 학교 소재지, 농촌 거주나 거주 경험 여부, 부모님의 농업직 종사나 종사 경험 여부, 농업에 대한 지식과 사고에 영향하는 영향원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 유형에서 유의차를 보이고 있었다. 일반계 고교 재학자는 식물생산 분야, 동물생산 분야, 농업기반조성 분야, 농업 교육 및 연구 분야를 더 많이 농업 분야로 인식하는 데 반하여, 농업계 고교 재학자는 농축산물 가공 분야, 모피 및 임산물 가공 분야, 농자재 제조 분야,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 분야, 농업환경 분야를 농업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농고의 교육이 상대적으로 농업 관련직에 대한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져 농업직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도록 교육하고 있음을 말한다.

둘째, 가장 매력있는 농직업 분야는 농업교육 및 연구 분야로서 40% 정도였고, 그 다음은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 분야, 식물생산 분야, 농업환경 분야였다. 이는 식물생산 분야를 제외하면 대개 농업관련직 분야로서 앞으로의 수요도 농업관련직의 수요 급증이 예견되므로 인력 양성의 방향과도 부합하고 있음을 말한다. 동물생산 분야와는 달리 식물생산 분야는 일정한 정도의 신규 인력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과정의 유지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경향은 학교 유형이나 학교 소재지, 농촌 거주나 거주 경험 여부, 부모님의 농업직 종사나 종사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차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성별과 농업에 대한 사고 영

표 11. 농업과 농업직에 대한 지식이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별 매력있는 농업 분야

영향원 \ 농업분야	TV, 신문, 책		자신의 경험		농업종사자를 직접 보고		학교교육		주위사람의 이야기듣고		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식물생산 (재배)	16	16.7	2	4.3	21	15.0	8	29.6	18	16.2	65	15.4
동물생산 (사육)	4	4.2	4	8.5	10	7.1	0	0.0	6	5.4	24	5.7
농축산물 가공	5	5.2	3	6.4	1	0.7	0	0.0	1	0.9	10	2.4
모피 및 임산물 가공	2	2.1	3	6.4	1	0.7	0	0.0	1	0.9	7	1.7
농자재 제조	2	2.1	3	6.4	0	0.0	2	7.4	1	0.9	8	1.9
농업기반조성	1	1.0	0	0.0	2	1.4	0	0.0	3	2.7	6	1.4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	22	22.9	10	21.3	19	13.6	4	14.8	15	13.5	70	16.6
농업환경	10	10.4	8	17.0	27	19.3	3	11.1	15	13.5	63	15.0
농업교육 및 연구	34	35.4	14	29.8	59	42.1	10	37.0	51	45.9	168	39.9
합 계	96	100.0	47	100.0	140	100.0	27	100.0	111	100.0	421	100.0

주: $\chi^2=54.212$, $df=32$, $p<.05$

향원은 유의차를 보이고 있었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동물생산 분야, 농축산물 가공 분야, 모피 및 임산물 가공 분야, 농업교육 및 연구 분야를 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여학생은 식물생산 분야, 농자재 제조 분야, 농업기반조성 분야,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 분야, 농업환경 분야 등을 더 선호하고 있다. 특히 식물생산 분야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분야로서 앞으로 여학생들이 식물생산 분야에 입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견되어 그에 대한 교육적·직업적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업에 대한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원은 매력 있는 직업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식물생산직은 TV, 신문, 책과 주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학교 교육을 통하여 선호하게 되었고, 동물생산직과 농업환경직은 자신의 경험이나 종사자를 직접 보는 직접적 경험에 의하여 선호되었으며, 농축산물 가공직, 모피 및 임산물 가공직,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직은 TV, 신문, 책과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선호되었고, 농업기반조성직은 학교 교육을 통하여, 농업연구 및 교육직은 농업종사자를 직접 보거나 학교교육을 통하여, 농자재 제조직은 TV, 신문, 책이나 자신의 경험, 주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주로 선호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식물생산직과 농자재 제조직은 주위 사람들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고, 동물생산직, 농축산물 가공직, 모피 및 임산물 가공직은 자신이 직접적인 체험을 갖는 과정을 부여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직은 TV, 신문, 책과 같은 매스컴을 이용하여 안내되어야 하고, 농업환경직은 농업종사자를 직접 관찰하도록 하여야 하며, 농업기반조성직과 농업교육 및 연구직은 학교 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매력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경로의 교육과 직업 안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직업 중 매력이 없는 직업으로 판단된 것으로 동물생산직이 압도적이었으며, 그 다음이 모피 및 임산물 가공직이었고, 그 외의 분야는 10% 이하여서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은 편이었다. 모피 및 임

산물 가공 분야는 농업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낮은 편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이해의 결핍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 유형, 학교 소재지, 부모님의 농업직 종사 및 종사 경험 여부, 농업 사고 영향원에 따라서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농촌 거주 거주 경험 유무와 성별에 따라서 매력없는 직업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식물생산직, 농축산물 가공직, 모피 및 임산물 가공직,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직, 농업환경직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여학생은 동물생산직, 농자재 제조직, 농업기반조성직, 농업교육 및 연구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농촌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은 식물생산직, 농축산물 가공직, 모피 및 임산물 가공직, 농자재 제조직, 농업교육 및 연구직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농촌 거주 경험이 없는 학생은 동물생산직, 농업기반조성직, 농업기술서비스 및 농업유통직, 농업환경직에 대해 남학생에 비하여 부정적이었다.

넷째, 농업직에 대한 사고에 영향하는 영향원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주변인을 보고 영향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학교 교육이나 TV,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영향받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주변인, 학교 교육, TV와 같은 간접적 경험을 통하여 농업직에 대한 지식이나 견해가 형성되므로 농업에 대한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은 사회 교육의 개선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 병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 농업직에 대한 태도를 농업생산직과 농업관련직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조사 항목에 대하여 차이를 검증한 결과 안전성과 고용안정성에 있어서 농업관련직과 농업생산직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없었고 그 외의 항목에서는 서로 달랐다. 일반적으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야에서는 농업관련직이 농업생산직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판단되었다.

이들을 성별, 학교 종류, 학교 위치, 농촌 거주 경험 유무, 부모님의 영농 및 농업관련직 종사 경험 유무, 종사하는 농업직 유형등과 농업생산직과 관련직

에 대한 t 검증을 한 결과 유의차를 보인 것은 국가적 중요성, 수익성, 육체적 힘들, 난이도, 안전성, 사회적 인식, 가치, 장애성 등의 항목으로서 학교 유형은 가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차가 있었으나 농업생산직에서는 육체적 힘들 이외의 분야에서 유의차를 보였고, 농업관련직은 국가적 중요성, 육체적 힘들 항목만이 차이가 있었다. 농촌 거주 여부는 농업관련직과 농업생산직 모두에 있어서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달랐고, 학교 위치는 농업관련직의 태도에 있어서 유의차를 보였으며, 부모님의 농업직 종사 유무는 농업생산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가치와 장애성 변인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고, 수익성은 농업생산직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부모님의 농업직 종사분야는 농업생산직에 대한 태도에서는 가치와 안전성, 육체적 힘들 항목에서 유의차가 있었고, 농업관련직은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은 농업을 생산농업, 그 중에서도 특히 재배 위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농업과 농업직을 노동집약적이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며,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농업을 생산농업 뿐만 아니라 농업관계직이 포함되는 종합산업으로 인식하게 하고, 첨단화되고 과학화된 농업의 현황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보다 체계적이며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응답자들은 농업생산직은 농업관계직에 비하여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하고, 더욱 가치있는 반면, 농업생산직은 농업관계직에 비하여 더욱 3D 업종의 성격이 강하고, 장애가 어둡고, 매력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따라서 농업관계직은 국가적인 중요성과 가치성에 대하여 보다 강조를 하고, 농업생산직은 비판적인 항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업생산직과 농업관계직에 대한 세부 항목별 인식은 응답자들의 소속학교 유형, 거주지역, 부모의 농업종사 유무 및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과 농업직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응답자들은 농업과 농업직에 대한 지식이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며, 세부 농업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부 농업분야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업과 농업직은 범위가 매우 넓고,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성이 인식되도록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다양한 기법이 개발되고 각급학교와 사회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은 어릴 때부터 형성되므로 각 시기에 적절한 내용과 방법에 관한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과 농업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추후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추후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다양하게 하고, 관련 변인을 추가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맹현, 1995,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선택 및 직업관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2. 고천석, 1994, 청소년의 바람직한 직업관 확립을 위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3. 광기상, 1983,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태도와 관련변인,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업교육과, 수원.
4. 광기상, 송해균, 1988,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학습에 대한 태도와 그 관련변인,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0(3), pp.1-12.
5. 김동일 외, 1994, 한국 농촌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제연구소.
6. 김세민, 1983, 농촌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 가치관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경남.

7. 김영환, 1993, 영농구조의 변천과 농민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8. 김일철, 김태현, 정명채, 1992, 한국의 농민 의식과 농촌사회의 전망, 한국농촌사회학회.
9. 김종민, 1986, 중학생의 직업관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10. 김종선, 1993,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 가치관에 관한 조사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충북.
11. 김종숙, 민상기, 1994, 농업에 대한 국민의 시과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김해환, 1986, 농업고등학교 자영농과 졸업생의 영농 실태 및 가치관: 사천농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경남.
13. 박범열, 1988, 농업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직업관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14.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교육학 용어사전, 도서출판 하우, 서울.
15. 송해균, 1972, 농업에 대한 태도 검사척, 한국농업교육학회지 4(1), pp.1-6.
16. 송해균, 1973, 비농민의 농업에 대한 태도, 한국농업교육학회지 5(1), pp.21-24.
17. 송해균, 1995,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촌여성의 농업에 대한 태도,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7(4), pp.1-12.
18. 양한주, 1998, 중학생의 직업 가치관과 직업선택호도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업교육과, 수원.
19. 유후남, 1992, 국민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관 비교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서울.
20. 이문성, 1991, 농촌 청소년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업교육과, 수원.
21. 이민식, 1987, 청소년의 직업관에 관한 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공주 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충남.
22. 이병수, 1989, 농업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지각, 태도 및 가치 의식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23. 이영대, 1995, 농민의 직업관 및 거주지역에 대한 의식구조, 농촌사회 제5집, pp.151-170.
24. 이재영, 1992, 국민학교 학생들의 직업의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25. 이찬형, 1989,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원.
26. 이창식, 1996, 농촌 학생들의 환경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8(4), pp.47-64.
27.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제연구소(편), 1994, 한국 농촌 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 문음사, 서울.
28. 임인재, 1990, 직업 가치관 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서울.
29. 장민자, 1993, 학교 계열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직업가치관,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30. 전준희, 1980, 직업 인구 구조의 고도화가 아동의 직업관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31. 정범모, 1973, 가치관과 교육, 배영사, 서울.
32. 정철영, 1996a, 농직업의 종합적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8(2), pp.1-29.
33. 정철영, 1996b, 농업계 고등학교의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8(3), pp.1-22.
34. 정철영 외 3인, 1997, 농업교육 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9(3), pp.1-16.
35. 조연옥, 1988, 학생들의 직업관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서울.
36. 차경수, 박용옥, 1984, 우리 나라 전통적 가치관에 비추어 본 직업의식 분석 (연구보고서 KR 84-5),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37. 최동선, 1997, 고등학생의 직업적 성격과 학업

성취도, 학교에의 적응, 직업가치관과의 관계 분석,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업교육과, 수원.

38. 최영준, 1990, 농촌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관 조사 및 직업포부 Causal Modeling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업교육과, 수원.
39. 최영준, 최민호, 1990, 농촌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관 조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농학연구지 15(2), pp.139-152.
40. 한국농촌사회학회, 1992 한국의 농민의식과 농촌사회의 전망, 한국농촌사회학회, 서울.
41. Herr, E. L. & Cramer, S. H., 1992,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es (4th ed.), New York, Harper Collins.
42. Morrow, P. C. & McElroy, J. C., 1994, The effect of preference for work status, schedule, and shift on work-related attitud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2), pp.202~222.
43. Robinson, J. P., Shaver, P. R. & Wrightsman, L. S. (Eds.), 1991,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California, Academic Press.
44. Yates, L. V., 1990, A note about values assessment of occupational and career stage age group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23(1), pp.39~43.
45. Zunker, V. G., 1990,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3rd ed.),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46. Zytowski, D. G., 1994, A Super contribution to vocational theory: Work value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3(1), pp.25~31.